

파괴되어가는 생태계 현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여전히 '진행형'

'도도의 노래' 레이비드 캠먼 지음

"도도(dodo)라는 새가 있었다. 라푸스 쿠콜라 투스라는 학명이 붙은, 비둘기목에 속하는 새로 아프리카 미다스카르 동쪽 모리셔스섬에서만 꽤 오랫동안 살았다. 수만년 동안. 몸무게가 14kg 정도 되는 덩치에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했다. 포식자가 없는 생태계, 땅 위에 떨어진 씨앗, 열매 등을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날지 않아도 자유를 만끽했다.

이 섬에 1507년 인간이 상륙했다. 그리고 150여년 만에 도도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도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 호도 사피 엔스가 어떤 종(種)을 사라지게 한 최초의 사건으로 규정됐다."

"과거 지구 생태계에는 몇 차례의 대멸종 사례가 발생했다. 6500만년 전 발생한 백악기 대멸종은 지구에 살던 공룡을 완전히 멸종시켰고 2억5000만년 전 폐름기 대멸종은 해양 무척추동물 중 절반이 넘는 과(科)의 멸종을 불러왔다.

이외 4억4000만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3억7000만년 전 고생대 데본기, 2억 1500만년 전 트라이아스기 말에도 각각 대멸종이 일어났다. ..., 인류는 또 하나의 대멸종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건 지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일어난 대멸종 사건 중 최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생태저술가 레이비드 캠먼은 '도도의 노래'로 인류에게 음울한 전망을 전한다. 역사상 최악의 대멸종을 맞이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인간의 탐욕으로 도도를 멸종시킨 것처럼 인류 자신도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설득력 있게, 풍부한 사례를 들어 자연스럽게 소개된다.

오래 전 발간된 생태학의 '고전'을 새롭게 다듬어 출간한 것이지만 그 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여전하고 진행형이라는 점,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 변화까지 가세했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한층 더하다.

종의 분포에 관한 사실과 패턴에 대해, 즉 동·식물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는 어디에 살고 있지 않은지를 연구하는 생물지리학(bio-geography)을 바탕으로 884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지만 어렵지 않게 읽힌다.

저자는 지구 곳곳의 섬을 돌아 멸종 생물의 발자취를 추적, 흥미진진하게 전하고 있다. 책장을 넘기면 도도새를 포함해 나그네비둘기,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주머니늑대 등 생물이 진화하고 변종, 멸종하는 수수께끼가 자세하게 드러난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인간이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통해 생태계를 행해지는 환경파괴에 대한 '종말의 노래'가 책이 들려주는 핵심 메시지다. 하지만 곳곳에 소소한 읽을거리가 녹아 있어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몸길이가 2~3cm에 불과한 카멜레온 종이 어디에 사는지를 비롯해 코끼리를 잡아먹는 코모도왕도마뱀 얘기나 바다를 헤엄



쳐 건너는 코끼리. 몸집이 거대해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코끼리새 등 흥미롭게 읽을만한 내용으로 독자를 끌어들인다. 기행문 형식을 택한 서술 형태로 무리 없이 읽는데 한점을 하고 있다.

지구 미래에 대한 두둔은 구석뿐 아니라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칼 존스 등 자연보호주의자들이 펼치는 활동도 비중 있게 다룬다.

저자는 현 시대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멸종 위기 국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신석기시대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의 조류 중 20%가 멸종됐고 최근 들어 멸종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으며 위험 범위도 모든 동식물로, 섬에서 모든 대륙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한번 사라진 종은 다시는 태어날 수 없다. 서식지가 팽괴되면 거기에 사는 동물들이 죽듯이,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우리도 멸종의 길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수긍이 간다.

국내에서도 34종의 위급종, 126종의 위기종, 169종의 취약종 등 286종류의 생물들이 멸종 위협에 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책을 덮고 나면 주변 환경을 돌아볼 수 밖에 없다. <김영사·3단원>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그대 오늘 사랑을 굽지는 않으셨나요"

'사랑외전'

이외수 지음



"구멍가게든 백화점이든 신용 떨어지면 재산 말아먹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나리인들 그 이치가 다르겠습니까." "작가는 글만 써야지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된다는 논조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좁라 거룩하신 말씀이네요. 수영선수 박태환은 땅을 밟으면 안되고 피겨여왕 김연아는 부츠를 신으면 안 되겠군요. 잠시 코로 웃어드릴게요." "한 가지를 살피기도 벅찬 세상, 자녀가 많은 것을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로 군림하시는 맘시다. 얼마나 척박한 시대인지 직시합니다. 잘 하는 것은 없어도 말썽은 안 부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쓰고나니 웬지 읊해해집니다."

특유의 유머와 위트가 가득하다.

100만 트위터 팔로어를 거느린 소설가 이외수가 낸

에세이집으로, SNS를 통해 매일 집필하고 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발표해온 글 중에서 수백~수천 번 리트윗된 인기 글을 모아 주제별로 엮어냈다.

'사랑외전'은 2007년에 내놓았던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소통법), 2008년 '하야하야'(생존법), 2009년 '청춘불패'(소생법), 2010년 '아불류 시불류(비상법)', 2011년 '절대강자'(인생정면 대결법)에 이은 것으로 이번엔 사랑법이란 이름을 붙이고 "그대 오늘 사랑을 굽지는 않으셨나요"로 첫 장을 연다.

저자는 9개 소주제로 나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던져져 지쳐 있는 이들에게 위트있는 말로 사랑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알게해주고 있다.

<해냄출판사·1만4500원>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SNS를 통한 자유 연대의 힘 '이집트 혁명'

'레볼루션 2.0'

와엘 고님 지음



페이스북을 매개로 군중을 한데 모아 30년 독재 체제로 집권한 무바라크 정권을 종식시킨 '이집트 혁명'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레볼루션 2.0'은 구글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마케팅 책임자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인 와엘 고님의 회고록으로, 기존의 '혁명'개념을 현대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저자는 2010년 6월 이집트에서 경찰의 폭행으로 칼 레드 사이드라는 청년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에 '우리는 모두 칼레드 사이드다'는 페이지를 만들고 "오늘 그들이 칼레드를 죽였습니다. 만일 내가 그를 위

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일 그들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는 글을 올리면서 전 세계에 혁명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페이지를 만든 지 한 시간만에 회원 수가 3000명으로 늘어났다. 첫 날 2만6000명의 회원들이 몰려들고 댓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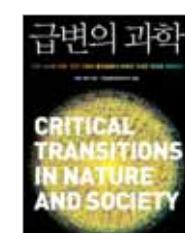
1800개가 넘게 달리기 시작했다. 한 개인의 분노는 성난 군중을 끌어들이면서 무바라크 퇴진 뿐 아니라 아랍 세계의 민주화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저자는 이후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1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1위에 올랐다. 이집트의 짧은 대중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연대의 힘을 여실히 증명해낸 셈이다.

<일에이치코리아·1만5000원>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자연과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급변 현상이란?

'급변의 과학'

마틴 세퍼 지음



'급변의 과학'은 기후·토양·바다 등 생태계와 진화, 사회 발전 등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급변 현상을 '임계전이'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책의 주제이나 다름없는 임계전이란 시스템의 한 상태가 다른 상태로 급작스럽게 변해간다는 뜻으로, 모든 급변이 일어나기 전 그 전兆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고 저자 마틴 세퍼는 주장한다.

저자는 또 구체적 사례로 6000여년 전 방대한 초목과 습지로 뒤덮인 지역이던 서부 사하라 사막이 농경과 기후 변화에 따라 사막으로 급격하게 변모한 점, 카리브해 산호초 군락에 서식하던 성게의 집단 폐사로

갈조류의 과잉 생장이 빛어지고 산호초 군락 파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소개하고 있다.

책은 특히 임계전이에 앞서 나타나는 조기 신호가 '회복력 감소'라는 공통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는 점에 주목, 이 조기신호를 어떻게 알아채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가와 때로는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몇 세기 안에 생태계, 기후, 사회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다가온 미래를 최선으로 만들기 위한 과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저자 주장이다.

<궁리·2만8000원>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건축, 삶의 진실함을 일깨운다

책 150여권에 대한 기록, 재밌다

'오래된 것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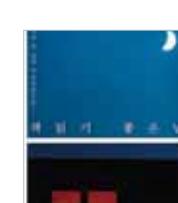
승효상 지음



'건축가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써내려간 책은 여행길에서

'책 읽기 좋은 날'

이다혜 지음



책에 관한 책이 많이 출간되는 요즘이다. 그중에서도 이다혜(씨네 21 기자)의 '책 읽기 좋은 날'은 돋보이는 책이다.

10년간 '씨네 21' 등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은 이 책에는 '누군가 내 삶에 끼어들었으면' '공장이 뒤통수 칠 때' 등 여섯 가지 카테고리 아래, 150여권에 대한 리뷰를 쓰지 않으면 기대하곤 했다'는 고백을 할만큼 그녀가 언급한 책에 대한 글을 읽다보면 그 책을 나도 한번 읽고 싶어진다.

<책읽는수요일 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 다른 장르가 없다. 쉽게 읽히는 문체에, 자신의 경험과 세상사는 이야기들이 함께 얹혀있는 덕에 흥미롭게 읽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소개글을 쓴 소설가 김중혁이 '책을 출간하고 나면 이다혜가 내 책에 대한 리뷰를 쓰지 않을까 기대하곤 했다'는 고백을 할만큼 그녀가 언급한 책에 대한 글을 읽다보면 그 책을 나도 한번 읽고 싶어진다.

<책읽는수요일 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음대로 고슴도치=

부모의 과잉 보호 탓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의 답답한 마음을 동화로 풀어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게 하고 대신 해주려는 엄마·아빠에게 화가 난 고슴도치 또 치가 물레 짐을 나와 다양 한 모험과 위기를 겪지만 지혜롭게 해쳐나가는 과정을 재미있이 담아냈다.

<별금·9800원>

'독후감 쓰기 싫은 날=

=방학 숙제로 빼지지 않는 독후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심경을 고스란히 녹여낸 동화책. 재미있다는 책이라도 독후감을 쓰려고 하면 읽기 싫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가 하면, 억지로 교훈을 만들어 내느라 머리를 싸매던 기억이 떠오른다. 독후감 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책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주인공 지웅이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그려진다.

<주니어김영사·9500원>

'한밤중의 회장실=

늦은 밤, 혼자 회장실에 가는 두려움을 없애주면서



돌이가 동생 기저귀를 갈아입고 바쁜 엄마를 못 기다리고 혼자 회장실로 가는 과정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그려져 있다.

늦은 밤, 혼자 회장실에 가는 두려움을 없애주면서

자연스럽게 읊어버린 화장실 사용법도 알려준다.

<한림출판사·9500원>

'북적북적 우리집에'

김장하려 오세요=김장하는 날 벌어지는 일종달봉 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그장의 의미, 그 과정에 숨겨진 재미,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 나눔 정신 등도 녹여냈다. 도시에서 보기 힘들어진 김장 담그는 상황을 통해 김치 효능과 우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 있다. <푸른숲주니어·1만1000원>

▲부엉이 아파트=부엉이 아파트에서 태어난 빛초롱이와 세 꼬마 부엉이의 이야기로 '다름'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여느 부엉이와 달리 반쯤 감긴 눈, 낮에 울고 밤에 자는 빛초롱이를 통해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그림책이다. 소변이 너무 마려워 잠에서 깨 방

<스푼북·9800원>

- ▲노랑무늬영원="단편은 성냥 불꽃 같은 데가 있다"는 소설가 한강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내놓은 소설집. 2002년 쓴 '노랑무늬영원'을 포함해 '회복하는 인간', '훈자', '에우로파', '밝아지기 전에' 등 2012년까지 발표했던 중·단편 일곱편을 엮어냈다. 노랑무늬영원의 경우 교통사고로 두 손을 쓰지 못하게 된 미술가의 절망을 날카롭게 저며내 고통 속에 희망이 짹트는 삶의 역설을 절묘하게 포착해냈다.
- 〈문화과학·1만2000원〉
<li